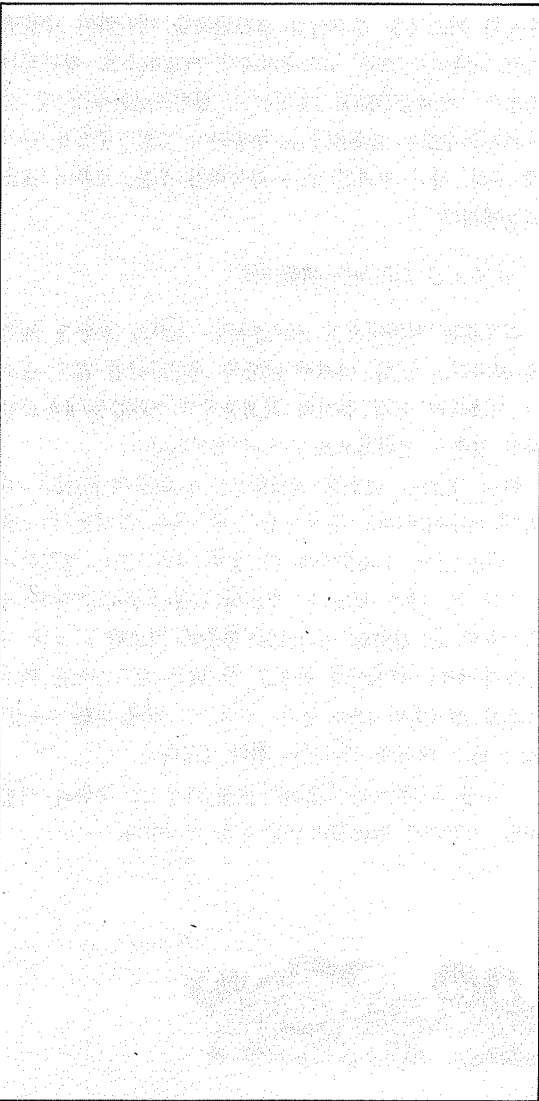


1973년 제4차 中東전쟁을 계기로 발발한 제1차 석유위기는 石油가격을 불과 3개월만에 약 4배로 급상승시켜, 세계의 에너지사정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으며, 개발도상지역에 있어서 신흥산유국의 대두도 그 일환이다. 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에

非OPEC산유국 동향



따른 省에너지대책의 보급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반영하여, 세계의 原油생산량은 80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85년의 생산량은 10년전인 75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선진공업국이나 非OPEC 산유국이 原油생산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OPEC의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결과이지만, 특히 非OPEC 산유국의 비약적인 생산증가가 현저하며, 최근 10년간 이들 그룹의 石油생산량은 합계로서 2.3배 증가하여 세계에서의 구성비도 6%에서 15%로 상승하였다.

◇ 증가추세의 石油소비

石油 가격의 급등은 모든 石油소비국에 대하여 똑같이 타격을 주었으나, 선진공업국에 있어서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나 다른 石油대체 에너지의 사용, 省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石油에너지 절약형의 산업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80년 이후 국민경제의 확대를 확보하면서도 석유소비량의 현저한 감소에 성공하였다. 한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뒤늦게 시작한 사회개발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에, 국내 경제기반의 정비와 자국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공업화를 서둘러 온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석유가격의 급등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아직 에너지 다소비형의 제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의 도상에 있으므로 당면 석유 가격의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기술력도 부족하였다. 또한 경제기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국내사정을 안고 있는 각국 정부는 심각한 사회혼란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지불의체 할당의 강화 등, 石油수입량의 억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석유소비량은 두차례의 석유위기시를 포함, 계속 증가일로를 걸어 왔다.

◇ 활발한 탐사개발

이와 같이 石油가격의 급등은 그렇치 않아도 자본축적이 빈약하고 국내자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한편, 동국내의 석유자원탐사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개발도상의 石油 수출국에 있어서 石油수출입은 국내 경제건설과 식량이나 공업제품의 수입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요 교역수단이며, 석유가격의 상승은 석유수출입 증대를 위해, 原油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石油수입국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石油수입 대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石油의 자금유출을 높이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자기자금이 부족할 개도국은 자신의 石油탐사 개발자금의 대부분을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은행으로서도 석유가격의 상승은 石油매장량을 갖고 있는 貸付先에 대한 신용을 증대시켜, 개도국에 대한 막대한 융자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제1차 석유위기 전후로부터 OPEC의 국내석유자원의 국유화 움직임에 따라 투자를 잃은 국제석유기업이 새로운 투자선으로서 개도국에 계속 진출한 것도 동 지역의 석유탐사 개발을 더욱 활성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약적 발전을 하는 멕시코

非OPEC 산유국 중 石油매장량과 생산량이 최대이고, 또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곳은 中南美의 멕시코이다. 85년 동국의 原油생산량 280만b/d는 세계에서는 소련, 美國,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4위이며, 非OPEC 산유국의 총原油생산량의 약3분의1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非OPEC 산유국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70년대초 石油 순수입국이었던 멕시코는 제1차 석유위기후,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에 의한 적극적인 석유탐사 개발에 진력한 결과, 세계적인 거대유전을 계

속 발견하여, 75년부터 80년까지의 불과 5년 동안에 원유매장량을 4.6배, 생산량도 2.8배로 신장시켜, 곧 세계의 대 석유수출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세계의 석유가격 수준유지와 국내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石油생산을 억제하였으나, 그래도 80년부터 85년까지의 생산증가는 7.4배 이상에 달하였다.

◇ 석유탐사 활발한 中南美

中南美에서는 멕시코 이외에서도 石油의 탐사 개발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석유수입국 이긴 하지만, 75년부터 85년까지 10년 동안에 石油매장량을 2.7배로 증가시켰으며, 생산량도 85년에는 80년의 2.8배인 54만b/d에 달하였다. 이밖에 현재도 리오데자네이로 앞바다와 아마존의 벽지에서 상당히 유망한 유전을 발견, 개발중이며, 현재 53%의 석유자급율을 100%로 올리는 것도 결코 꿈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카노 리몬油田의 발견에 따라 86년부터는 석유수입국에서 동 지역의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를 능가하는 원유수출국으로 전환되는 등, 활발한 탐사개발활동이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신장세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멕시코에 이은 非OPEC 산유국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75년부터 85년까지의 기간에 石油생산량 4배를 증가하여, 85년의 石油생산량은 85만b/d로 100만b/d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동국에서는 국영석유회사인 EGPC와 외국석유회사와의 합작사업에 따라, 동국의 주요 산유지대인 스웨즈만 외에 현재 새로 서부사막지구에서 의욕적인 탐사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동지역으로부터 지중해까지의 石油수출용 파이프라인도 부설되어, 장래에는 스웨즈만을 대신할 동국의 주요 산유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밖에 소규모이기는 하나 근년에 앙골라, 카메룬에서 石油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石油수입국이면서도 印度가 원유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75년부

터 85년까지 원유매장량은 4.1배, 생산량은 3.7배 신장하였으며, 85년 동국의 원유생산량은 동지역의 주요한 石油수출국인 말레이지아나 브루네이를 능가하는 61만b/d로, 非OPEC 산유국중에서는 멕시코, 이집트에 이어 3위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 주목되는 오만

中東에서는 오만이 특히 80년 이후 85년까지 5년동안에 石油매장량과 생산량이 다같이 70%의 신장을 보였으며, 87년 후반에는 동국의 石油생산량이 60만b/d를 돌파하였다. 오만 石油가격은 최근 특히 수에즈 以東의 석유시장의 주요한 가격지표가 되고 있어, 오만은 중요한 石油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北예멘에서는 알리프 유전의 발견에 따라, 87년말부터 새로 약 15~20만b/d의 石油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86년의 石油 판매경쟁과 石油가격 폭락은 또다시 非OPEC 산유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70년 이후 처음으로 동 그룹의 石油생산량은 전년수준을 하회하였다. 그러나 87년의 原油생산량은 다시 회복하였으며, 석유수급을 전망하는 데도 향후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주요한 非OPEC 산유국의 개황을 국가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멕시코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유국의 하나이며, 1921년에는 전세계 石油생산량의 약 25%에 상당하는 53만b/d를 생산하였다. 그후에는 생산량이 멕시코 혁명하의 신헌법(1917)에 의한 석유개발의 규제강화 등에 따라 감소 또는 정체하였는데, 내수도 증대되어 71년부터 石油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72년에 레로르마에서, 76년 이후에는 캄프차灣 앞바다 아티콘테베크에서 대유전이 계속 발견되어, 75년에 63억 배럴이었던 동국의 原油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81년에는 720억 배럴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72년에는 50만b/d에 지나지 않았던 멕시코의 原油생산량은 80년에는 200만b/d를 넘는 경이적인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대외누적 채무나 석유를 포함한 1차상품의 국제시황의 약세등에 따라, 82년에는 경제위기에 직면, 石油의 탐사, 개발활동도 감소하여 근년 동국의 原

유매장량은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82년 이후 멕시코는 동국 石油의 수출상한을 150만b/d로 정하고,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 동국 石油수출 가운데 50%는 중질인 마야 원유를 중심으로 美國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는 약 30%, 日本 등 극동에는 주로 경질의 이스무스 原油를 중심으로 약 15%를 수출하고 있다.

OPEC가 18달러의 고정가격으로 복귀한 현재에도 멕시코는 美國등 서반구, 유럽, 극동의 각각 상이한 석유시장 연동형의 독특한 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OPEC와의 협조자세를 취하면서도, 크게 변동하는 석유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석유판매전략을 갖고 있다.

2. 콜롬비아

콜롬비아도 오래된 산유국이었으나, 70년을 절정으로 石油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의 증가에 따라 76년 이후 85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石油수입국이였다.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한 후, 콜롬비아는 필사적인 탐사활동을 하였으나, 한 동안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83년 동국의 輿地에서 가채매장량 10억 배럴을 상회하는 거대유전 카노·리온의 발견에 성공하였다. 이 결과로 동국은 86년 중반부터 반전되어 다시 수출국으로 되었으며, 85년에 17만b/d에 불과하던 石油생산량은 87년 상반기에는 평균 36만b/d에 달하였으며, 주로 美國에 약 10만b/d의 石油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카노·리온 油田이 발견된 장소는 콜롬비아의 북동오지, 베네수엘라와의 국경에 가까운 20만 평방키로미터에 펼쳐 있는 열대 大濕原 지대인 라노스 추적분지의 알라우카 직할지이며, 옥시덴탈社가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원격지에 있는 油田의 개발은 어려움이 많았다. 콜롬비아는 해발 5,000미터를 넘는 산을 갖고 있는 안데스산맥이 국내의 남북을 3개 지역으로 가르고 있는 산악국가이며, 유전개발을 위한 도로, 다리, 수도, 병원, 학교, 통신설비 등의 건설자재 수송은 모두 空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때는 동국내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비행기가 이용되었다. 또한 송유용 파이프라인은 산사태가 빈발하는 안데스 산맥의 2,700미터 지점을 게릴라 공격에 시달리면서 2차레나 넘으며 건설하고, 장마철에는 수면이하로 잠기는 습지대에 부설하기 위하

여 8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후에도 동국에서는 활발한 탐사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3. 이집트

이집트의 原油생산은 76년의 33만b/d에서 85년 88만b/d로 매년 눈부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석유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한 86년은 12년 만에 전년수준을 하회하여, 전년대비 마이너스 8%인 81만b/d의 생산량에 머물렀다.

생산량이 감소한 최대의 이유는 石油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85년에 48만b/d였던 수출량이 86년에는 38만b/d로 약 21%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출감소 원인의 하나는 이집트의 원유가격 정책이 급격한 석유시장 가격 하락 중에 뒤늦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트백 가격방식을 필두로 많은 石油수출국이 시장 직접연동형의 가격결정 방식을 계속 채택하는 가운데, 이집트는 고정 공식가격 제도의 유지에 계속 집착하였다. EGPC(이집트 국영 석유회사)는 석유시장가격의 하락에 따라, 86년초 배럴당 26.70달러였던 수에즈 브랜드 원유 가격을 동년 7월 16일부로 7.35달러로 인하할 때 까지, 도합 11회에 걸쳐 공식가격의 하향 조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집트産 원유가 비싸다는 감각은 불식되지 않은 채, 7월의 동국 石油생산량은 58만b/d까지 감소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석유산업은 이집트 경제의 주요한 지주의 하나이며, 총무역수입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86년의 석유가격 붕괴와 수출량의 감소에 따라 11억 달러로 약 1/3으로 줄어들었다. 동국은 현재 400억 달러 가까운 대외채무를 안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회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보조금 제도에 따라 항상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어, 어려운 동국경제는 석유수입의 격감에 따라 더 한층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4. 北예멘

北예멘은 中東의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국민 1인당의 연간 국민소득이 550달러로, 인근 OPEC국의 20-40분의 1로 아라비아 국가 중 가장 가난한 국가이다.

이 北예멘의 동부·사우디아라비아와 南예멘과의 국경에서 가까우며 예전에 사바 여왕의 전설로 유명한 고대

사바왕국의 중심지 알리브지방에서 84년 동국 최초의 유전인 알리프 유전이 텀트 석유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이 유전의 매장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식적으로 5억 배럴로 발표되었으나, 그 후의 조사에 의하면 1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7년 10월에는 紅海의 살리후 수출 터미널까지의 파이프라인 부설도 완료되었으며, 동년 11월 15일부터는 당초 15만b/d로 생산이 개시되었고, 12월 중순부터는 石油수출이 시작되었다. 또한 88년 3월 이후에는 산유량이 20만b/d로 증산될 예정이며, 국내 정유공장용 1만b/d를 제외한 물량이 수출될 것이다.

또한 80년대말부터 90년에 걸쳐, 北예멘의 石油 잠재 생산능력은 40-60만b/d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南예멘과 같이 아라비아 반도 최후의 石油수출국으로서 中東의 유력한 石油수출국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5. 오만

60년대 후반부터 原油생산을 개시한 非 OPEC산유국 오만은 동 지역의 주요 산유국 중에서는 가장 후발 산유국이지만, 최근 동국은 여러가지 난점에서 급격히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오만産 석유의 첫째 특징은 中東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原油의 대부분이 고유황이고, 中·重質 원유인데 비하여 동국 원유는 저유황 경질원유이며, 경질화라는 세계의 석유제품 수요구조에 적합한 원유라는 점이다.

둘째 특징은 非OPEC산유국이며, 종전부터 석유시장 동향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년 오만 石油가격은 네트백 판매로 시행한 사우디 아라비아産 원유를 대신하여 시장가격의 중요한 지표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번째 특징은 이란·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와 상호 탱커 공격에 다른 페르시아灣 정세의 긴박화속에서 石油공급의 안정보장상 호르무즈 해협의 외부에 위치하는 오만의 지역적 우위성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네번째 특징으로서는 세계적인 石油탐사, 개발, 생산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동국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결과, 80년 이후 동국은 石油매장량과 생산량이 모두 대폭 상승하여 목표로 잡고 있는 100만b/d의 생산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심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일본에너지경제. 88. 3월호〉